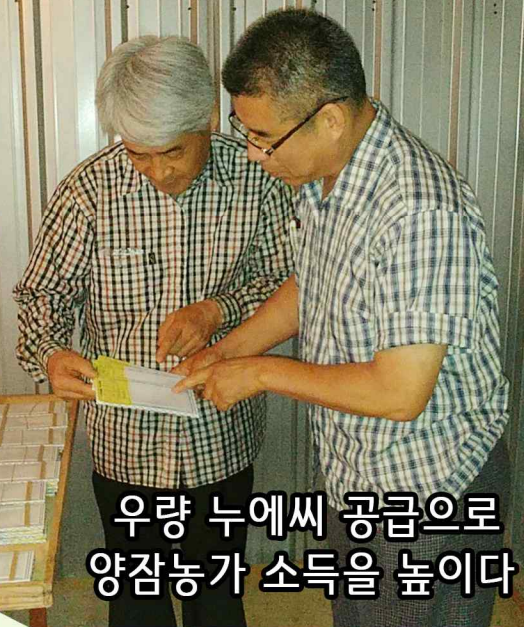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전남 150호 농업정보

주간 2017. 8. 28. - 9. 3.



우량 누에씨 공급으로
양잠농가 소득을 높인다



전남 농업기술원

목차 및 요약

01 주간 기상전망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9~23도, 최고기온: 27~30도)과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5~14mm)과 비슷하겠음

0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 가축사육 및 가격전망

0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0

- ▶ aT, 한국 대표 술과 함께 중국 베이징으로 출격
- ▶ aT와 함께라면 어떤 바이어도 클릭한번으로 수출 OK!

0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2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0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14

- ▶ 아스파라거스 생산성 향상 여름 수확종료 후 단수처리 효과
- ▶ 양파 기계 정식 육묘 시 생장 억제제 처리의 영향
- ▶ 무화과 열매 가공원료의 전처리 방법
- ▶ 녹·홍차 이용 쌀파스타 제조방법 및 적용

- ▶ 석회유황 종자소독법 벼 키다리병 방제 일등공신
- ▶ 우량 누에씨 공급으로 양잠농가 소득을 높이다
- ▶ 청정 유기축산물 생산 시동
- ▶ 농업용 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협약체결
- ▶ 기능성분 풍부한 햇고구마 최고 품종 품원미
- ▶ 국산 사과 『아리수』 초가을 사과시장 사로잡는다
- ▶ 과수 토양병 흰날개무늬병, 감염 여부 손쉽게 진단
- ▶ 번식능력 뛰어난 한국형 씨돼지 2마리 선발
- ▶ 가을 베란다 텃밭 가꾸기, 준비하세요

06 정책 동향 30

- ▶ 전남도, 24일부터 가금농가 권역별 순회교육
- ▶ 농식품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방안 마련

0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3

- ▶ 나주시, 미래 농업 대비한 드론 국가자격증 반 운영
- ▶ 광양시,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선다
- ▶ 담양군, 농작업 대행 서비스 9월초 개시
- ▶ 고흥군, 농산물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생 선착순 모집
- ▶ 화순군, (주)포프리 화순식품단지에 600억원 투자
- ▶ 장흥군, 국산 품종 조사료 자급을 향상 박차
- ▶ 강진군, 농촌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 ▶ 함평군, 고품질 아로니아 수확 한창

08 해외 농업정보 41

- ▶ 미국, 간식처럼 먹는 과일·야채 시장 급성장
- ▶ 일본, 주키니 호박의 소비량 증가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8. 28.(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밀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0.1% 상승하며, 전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함
 - 옥수수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1% 하락하며, 계약 최저치를 기록함
 - 대두 : 대두 선물가격은 2주간의 최고치에서 0.2% 하락함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 ·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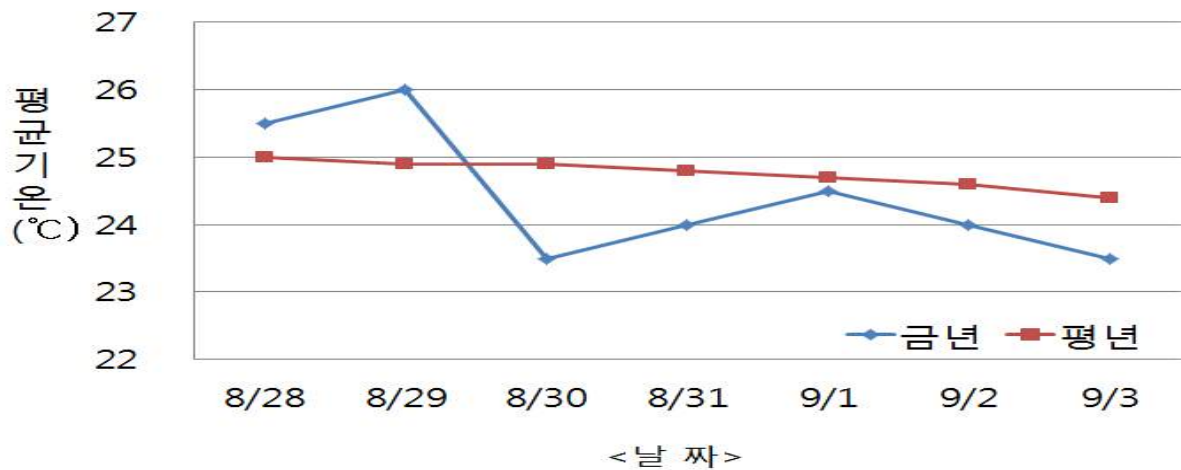
0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5

- ▶ 보리·밀 보급종 추가 신청 하세요
- ▶ 농촌진흥청, 2017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9월부터 시작
- ▶ 농식품 소비, 『가치소비·간편·컬러농산물·슈퍼곡물』 뜬다
- ▶ 전남농업정보지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
- ▶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8월 28일~9월 3일, 광주 기준)

- 평균기온 : 24.4℃ (평년대비 0.3℃ 낮음)
- 최고기온 : 28.4℃ (평년대비 0.8℃ 낮음)
- 최저기온 : 20.4℃ (평년대비 0.8℃ 낮음)
- 강 수 량 : 8.3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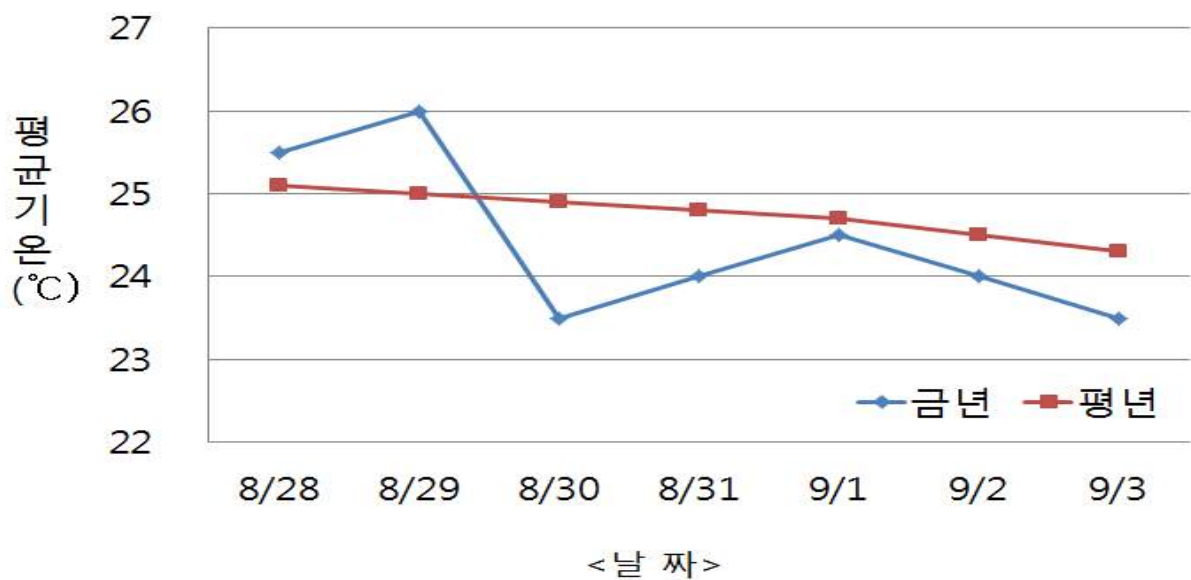


| 일 별 (월 · 일) | 평균기온(℃) | | | 최고기온(℃) | | | 최저기온(℃) | | | 강수량(mm) |
|----------------|-----------|-----------|-------------|-----------|-----------|-------------|-----------|-----------|-------------|---------|
|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평년 |
| 평 균 | 24.4 | 24.8 | -0.3 | 28.4 | 29.3 | -0.8 | 20.4 | 21.2 | -0.8 | 8.3 |
| 8. 28.(월) | 25.5 | 25.0 | 0.5 | 30.0 | 29.4 | 0.6 | 21.0 | 21.5 | -0.5 | 8.1 |
| 8. 29.(화) | 26.0 | 24.9 | 1.1 | 29.0 | 29.4 | -0.4 | 23.0 | 21.4 | 1.6 | 8.8 |
| 8. 30.(수) | 23.5 | 24.9 | -1.4 | 28.0 | 29.4 | -1.4 | 19.0 | 21.3 | -2.3 | 7.8 |
| 8. 31.(목) | 24.0 | 24.8 | -0.8 | 28.0 | 29.3 | -1.3 | 20.0 | 21.3 | -1.3 | 8.3 |
| 9. 1.(금) | 24.5 | 24.7 | -0.2 | 28.0 | 29.1 | -1.1 | 21.0 | 21.2 | -0.2 | 8.7 |
| 9. 2.(토) | 24.0 | 24.6 | -0.6 | 28.0 | 29.2 | -1.2 | 20.0 | 21.0 | -1.0 | 8.1 |
| 9. 3.(일) | 23.5 | 24.4 | -0.9 | 28.0 | 29.0 | -1.0 | 19.0 | 20.9 | -1.9 | 8.2 |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8월 28일 ~ 9월 3일, 목포 기준)

- 평균기온 : 24.4℃ (평년대비 0.3℃ 높음)
- 최고기온 : 27.6℃ (평년대비 1.2℃ 낮음)
- 최저기온 : 21.3℃ (평년대비 0.6℃ 낮음)
- 강 수 량 : 8.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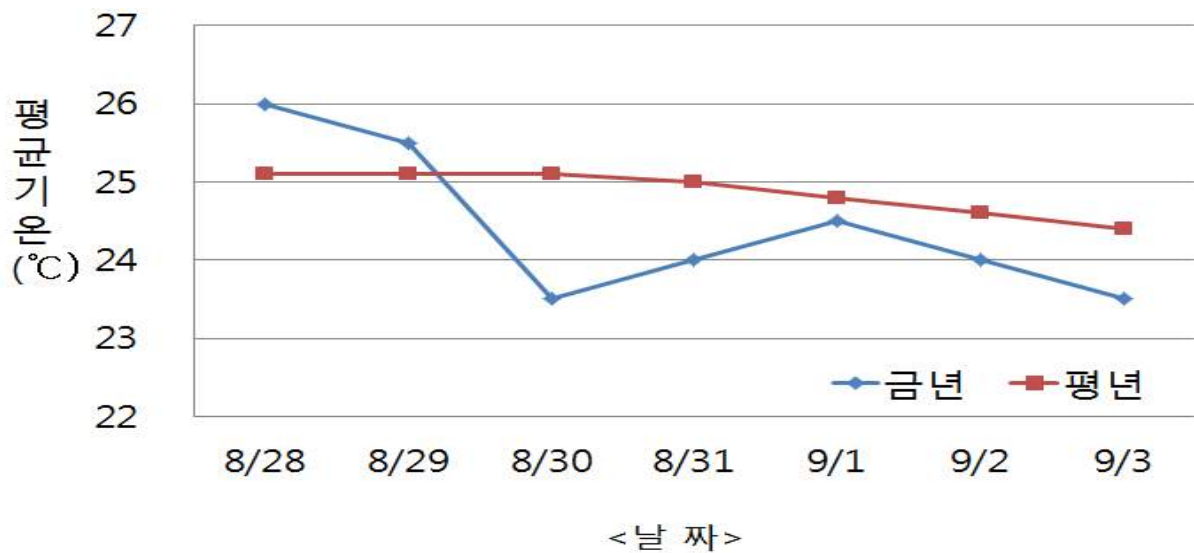


| 일 별 (월 · 일) | 평균기온(°C) | | | 최고기온(°C) | | | 최저기온(°C) | | | 강수량(mm) |
|----------------|-----------|-----------|-------------|-----------|-----------|-------------|-----------|-----------|-------------|---------|
|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평년 |
| 평 균 | 24.4 | 24.8 | 0.3 | 27.6 | 28.8 | -1.2 | 21.3 | 21.9 | -0.6 | 8.0 |
| 8. 28.(월) | 25.5 | 25.1 | 5.0 | 29.0 | 29.0 | 0.0 | 22.0 | 22.2 | -0.2 | 7.4 |
| 8. 29.(화) | 26.0 | 25.0 | 1.0 | 28.0 | 29.0 | -1.0 | 24.0 | 22.1 | 1.9 | 6.8 |
| 8. 30.(수) | 23.5 | 24.9 | -1.4 | 28.0 | 29.0 | -1.0 | 19.0 | 22.0 | -3.0 | 6.2 |
| 8. 31.(목) | 24.0 | 24.8 | -0.8 | 27.0 | 28.8 | -1.8 | 21.0 | 21.9 | -0.9 | 8.6 |
| 9. 1.(금) | 24.5 | 24.7 | -0.2 | 27.0 | 28.6 | -1.6 | 22.0 | 21.8 | 0.2 | 8.9 |
| 9. 2.(토) | 24.0 | 24.5 | -0.5 | 27.0 | 28.6 | -1.6 | 21.0 | 21.6 | -0.6 | 8.9 |
| 9. 3.(일) | 23.5 | 24.3 | -0.8 | 27.0 | 28.4 | -1.4 | 20.0 | 21.4 | -1.4 | 9.3 |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8월 28일~9월 3일, 여수 기준)

- 평균기온 : 24.4℃ (평년대비 0.4℃ 낮음)
- 최고기온 : 26.7℃ (평년대비 1.3℃ 낮음)
- 최저기온 : 22.1℃ (평년대비 0.2℃ 낮음)
- 강 수 량 : 8.5mm



| 일 별 (월 · 일) | 평균기온(°C) | | | 최고기온(°C) | | | 최저기온(°C) | | | 강수량(mm) |
|----------------|-----------|-----------|-------------|-----------|-----------|-------------|-----------|-----------|-------------|---------|
|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평년 |
| 평 균 | 24.4 | 24.9 | -0.4 | 26.7 | 28.0 | -1.3 | 22.1 | 22.3 | -0.2 | 8.5 |
| 8. 28.(월) | 26.0 | 25.1 | 0.9 | 29.0 | 28.2 | 0.8 | 23.0 | 22.6 | 0.4 | 8.1 |
| 8. 29.(화) | 25.5 | 25.1 | 0.4 | 27.0 | 28.3 | -1.3 | 24.0 | 22.5 | 1.5 | 8.1 |
| 8. 30.(수) | 23.5 | 25.1 | -1.6 | 27.0 | 28.3 | -1.3 | 20.0 | 22.5 | -2.5 | 7.7 |
| 8. 31.(목) | 24.0 | 25.0 | -1.0 | 26.0 | 28.1 | -2.1 | 22.0 | 22.4 | -0.4 | 9.1 |
| 9. 1.(금) | 24.5 | 24.8 | -0.3 | 26.0 | 27.9 | -1.9 | 23.0 | 22.3 | 0.7 | 9.2 |
| 9. 2.(토) | 24.0 | 24.6 | -0.6 | 26.0 | 27.8 | -1.8 | 22.0 | 22.1 | -0.1 | 8.9 |
| 9. 3.(일) | 23.5 | 24.4 | -0.9 | 26.0 | 27.5 | -1.5 | 21.0 | 21.9 | -0.9 | 8.3 |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가축사육 및 가격전망

□ 한육우 : 9월 한우 1등급 평균 도매가격 18,000~19,000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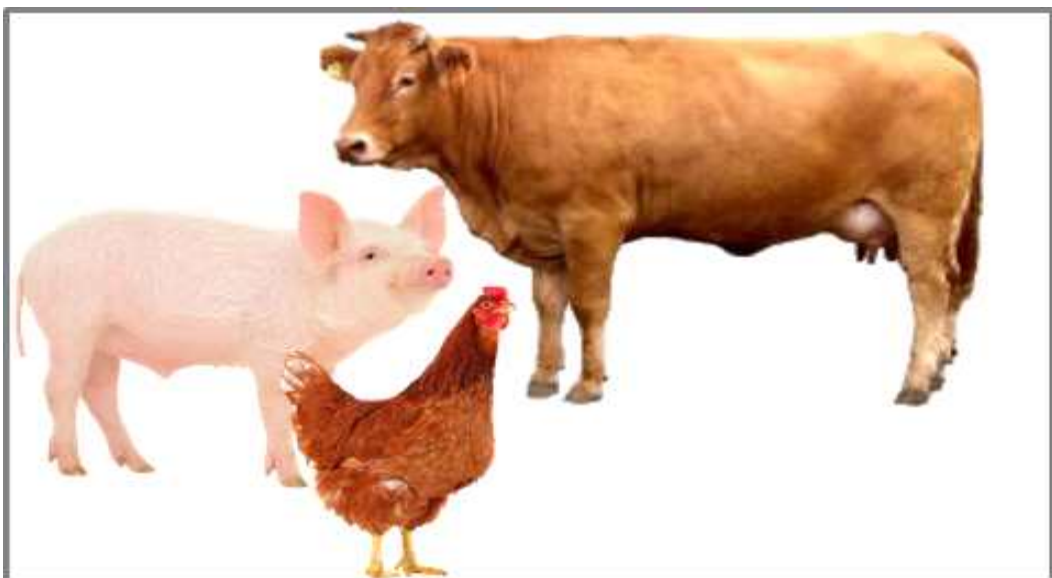
- 추석 전 출하예정 물량 부족으로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여 1등급 도매가격 일시적으로 상승한 kg당 18,000~19,000원 전망(생체 600kg 환산 645~681만원)
- 10월 이후 가격은 도축 마릿수 증가와 수요 불확실성 증대로 9월 보다는 하락한 kg당 17,000~18,000원 전망(생체 600kg 환산 609~645만원)

□ 돼지 : 9월 돼지 지육가격 탕박 기준 kg당 4,900~5,200원 전망

- 6월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증가한 1,043만 마리
- 모돈수 증가에 따른 자돈 생산 증가로 9월 돼지 도축 마릿수 증가
- 국내 돼지고기 가격강세로 9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보다 증가한 2만 9천톤 내외 전망
- 돼지 도축 마릿수는 증가하나 육가공업체 작업량 증가,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상승한 탕박 기준 kg당 평균 4,900~5,200원 전망

- 육계 : 9월 육계 산지가격 전년보다 하락한 kg당 1,100~1,300원 전망
- 7월 육용 종계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대비 1.3% 증가한 24,763톤
 - 7월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 전년 동월보다 0.7% 증가한 448만 마리, 총 사육 마릿수는 3.7% 증가한 791만 마리 추정
 - 병아리 생산 감소로 9월 육용계 사육 마릿수 전년보다 0.8% 감소 추정
 - 9월 도계 마릿수는 육용계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대비 1.3% 감소 전망
 - 살충제 계란 검출 영향에 따른 닭고기 수요 감소로 육계 산지가격 전년보다 하락한 kg당 1,100~1,300원 전망
 - 신계군 증가로 내년 2월까지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전년보다 높을 전망
 - 10월 육계 산지가격 kg당 1,400~1,500원, 11월 1,300~1,400원 전망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aT, 한국 대표 술과 함께 중국 베이징으로 출격

- 한·중 수교 기념회 연계 우리술 홍보시음회 개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가 중국·일본·미국·벨기에·스위스 등지의 해외공관과 함께 우리술 현지 홍보에 나섰다.
- 『해외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하는 우리술 시음회』는 8월 24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수교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처음 시작된다.
- 이번 시음회에는 전통주 소믈리에, 칵테일 바텐더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며, 우리 술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원료, 양조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듯 쉽고 재미있게 풀어 전달할 계획이다.
- 또한, 전통주 칵테일 쇼와 시음을 통해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편하게 우리 술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중국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우리 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중국 내 소비저변 확대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 농식품부와 aT는 이번 베이징 시음회를 시작으로 벨기에(9. 16. ~ 17.)와 미국(9월말), 일본(10월말) 등지에서도 우리 술의 우수성 홍보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시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와 aT는 한국전통식품문화관 『이음』 운영, 우리술 대축제 개최(11. 24. ~ 26., 양재 aT센터)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우리 술의 진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aT와 함께라면 어떤 바이어도 클릭한번으로 수출 OK!

- 농식품 수출업체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바이어 알선 서비스 오픈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 사장 여인홍)는 『글로벌 농식품 바이어 정보제공 서비스』를 8월 23일(수)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은 수출 희망 국가의 해외 바이어 정보를 사무실 또는 현장에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PC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
- aT는 BMS(Buyer Management System)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해외 신규바이어 기본정보와 재무·신용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 www.agrotrade.net에서 『aT BMS』를 클릭하거나, <http://bms.at.or.kr> 우측하단의 『바이어 정보알선 서비스』에서 바이어 정보 요청서를 작성하면 일주일 이내에 요청한 바이어의 정보(기본 현황, 신용정보 등) 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다.
-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딸기·김치와 같은 우리 농수산물식품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기존시장의 신규 유망 거래선을 발굴하기 위하여, 믿을만한 해외바이어의 정보를 개별 수출업체에 맞춤형으로, 필요한 시기에 제공하자는 것이 본 서비스의 취지”라며,
- “앞으로는 aT뿐만 아니라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바이어 알선 사업과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전시박람회 또는 국·내외 수출상담회의 신규바이어 알선사업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우리 농식품의 수출 판로 확대라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08. 28. 기준/단위 : 원)

| 부류 | 품 목 |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 | | | | | 등 락 률(%) | |
|-------|-----------|------------------|------------|--------------|---------|---------|---------|----------|--------|
| | | 판매 단위 | 당일 (08/28) | 1주일전 (08/21) | 1개월전 | 1년전 | 일평년 | 전년 대비 | 평년 대비 |
| 식량작물 | 쌀(일반계) | 20kg | 32,600 | 32,600 | 32,084 | 36,000 | 41,433 | ↓ 9.4 | ↓ 21.3 |
| | 콩(백태) | 35kg | 171,800 | 171,800 | 171,800 | 152,000 | 163,133 | ↑ 13.0 | ↑ 5.3 |
| | 고구마(밤) | 10kg | 32,000 | 34,400 | 34,320 | 28,200 | 28,133 | ↑ 13.5 | ↑ 13.7 |
| | 감자(수미) | 20kg | 44,000 | 43,000 | 33,440 | 22,800 | 23,933 | ↑ 93.0 | ↑ 83.8 |
| 채 소 류 | 배추(고랭지) | 1kg | 1,760 | 1,670 | - | 1,980 | 1,130 | ↓ 11.1 | ↑ 55.8 |
| | 양배추 | 10kg | 11,600 | 11,600 | 6,500 | 7,625 | 7,435 | ↑ 52.1 | ↑ 56.0 |
| | 오이(다다기계통) | 10kg | 37,667 | 39,333 | 39,933 | 45,000 | 35,726 | ↓ 16.3 | ↑ 5.4 |
| | 애호박 | 20개 | 38,200 | 29,200 | 24,360 | 22,600 | 20,827 | ↑ 69.0 | ↑ 83.4 |
| | 건고추(화건) | 60kg | 700,000 | 680,000 | 680,000 | 560,000 | 745,600 | ↑ 25.0 | ↓ 6.1 |
| | 풋고추 | 10kg | 58,000 | 45,200 | 50,680 | 94,250 | 43,893 | ↓ 38.5 | ↑ 32.1 |
| | 마늘(깐마늘) | 20kg | 127,000 | 126,000 | 128,000 | 132,000 | 112,667 | ↓ 3.8 | ↑ 12.7 |
| | 양파 | 20kg | 25,600 | 25,800 | 25,080 | 17,200 | 18,600 | ↑ 48.8 | ↑ 37.6 |
| | 당근 | 20kg | 28,600 | 28,600 | 29,000 | 48,000 | 37,720 | ↓ 40.4 | ↓ 24.2 |
| | 대파 | 1kg | 2,280 | 2,360 | 1,626 | 2,170 | 1,881 | ↑ 5.1 | ↑ 21.2 |
| | 파프리카 | 5kg | 38,600 | 27,200 | 15,080 | 22,400 | 26,960 | ↑ 72.3 | ↑ 43.2 |
| | 토마토 | 10kg | 34,600 | 30,800 | 16,200 | 21,100 | 22,047 | ↑ 64.0 | ↑ 56.9 |
| | 방울토마토 | 5kg | 27,000 | 22,800 | 15,960 | 17,400 | 17,147 | ↑ 55.2 | ↑ 57.5 |
| | 사과(후지) | 10kg | 39,800 | 39,800 | 41,840 | 40,200 | 53,356 | ↓ 1.0 | ↓ 25.4 |
| 과 일 류 | 배(신고) | 15kg | 54,600 | 55,000 | 57,840 | 55,050 | 51,550 | ↓ 0.8 | ↑ 5.9 |
| | 복숭아(백도) | 4.5kg | 16,800 | 17,600 | 23,840 | 15,650 | 17,628 | ↑ 7.3 | ↓ 4.7 |
| | 포도(캠벨얼리) | 5kg | 22,800 | 23,800 | 25,680 | 17,750 | 17,333 | ↑ 28.5 | ↑ 31.5 |

| 부류 | 품 목 |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 | | | | | 등 락 률(%) | |
|----------------|-----------|------------------|------------|--------------|---------|---------|---------|----------|--------|
| | | 판매 단위 | 당일 (08/28) | 1주일전 (08/21) | 1개월전 | 1년전 | 일평년 | 전년 대비 | 평년 대비 |
| 특용 작물 | 참깨(백색) | 30kg | 516,600 | 516,600 | 518,600 | 550,000 | 551,333 | ↓ 6.1 | ↓ 6.3 |
| | 느타리버섯 | 2kg | 14,400 | 14,200 | 11,240 | 15,400 | 15,247 | ↓ 6.5 | ↓ 5.6 |
| | 새송이버섯 | 2kg | 8,200 | 8,400 | 7,000 | 7,950 | 8,260 | ↑ 3.1 | ↓ 0.7 |
| 축 산 물 (소매가) | 쇠고기(한우등심) | 100g | 8,010 | 7,993 | 7,976 | 8,106 | 6,955 | ↓ 1.2 | ↑ 15.2 |
| | 돼지고기(삼겹살) | 100g | 2,351 | 2,315 | 2,287 | 2,062 | 2,018 | ↑ 14.0 | ↑ 16.5 |
| | 닭고기 | 1kg | 5,300 | 5,239 | 5,150 | 5,676 | 5,644 | ↓ 6.6 | ↓ 6.1 |
| | 계란(특란) | 30개 | 6,546 | 7,445 | 7,718 | 5,310 | 5,576 | ↑ 23.3 | ↑ 17.4 |
| | 우유 | 1리터 | 2,527 | 2,527 | 2,528 | 2,551 | 2,481 | ↓ 0.9 | ↑ 1.9 |

※ 가격변동폭이 30% 이내 , 31~70% , 70% 이상  으로 표시함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7. 08. 28. 기준)

| 구 분 | | 금주가격 | 전주가격 | 1년전 | 등 락 률(%) | |
|----------------|----|----------|----------|----------|----------|--------|
| | | | | | 전주 대비 | 전년 대비 |
| 큰 소 (600Kg) | 암 | 5,608 천원 | 5,477 천원 | 5,862 천원 | ↑ 2.4 | ↓ 4.3 |
| | 거세 | 6,549 " | 6,403 " | 7,028 " | ↑ 2.3 | ↓ 6.8 |
| 송아지 (6~7월) | 암 | 2,997 " | 3,044 " | 3,025 " | ↓ 1.5 | ↓ 0.9 |
| | 수 | 3,867 " | 3,873 " | 3,911 " | ↓ 0.2 | ↓ 1.1 |
| 육우(600Kg) | | 2,657 " | 2,652 " | 3,209 " | ↑ 0.2 | ↓ 17.2 |
| 젖소수송아지(7일령) | | 118 " | 123 " | 369 " | ↓ 4.1 | ↓ 68.0 |
| 돼지(110kg) | | 446 " | 475 " | 419 " | ↓ 6.1 | ↑ 6.4 |
| 육계(원/kg) | | 1,149 원 | 1,523 원 | 1,814 원 | ↓ 24.6 | ↓ 36.7 |
| 계란(원/특란10개) | | 1,403 " | 1,727 " | 1,066 " | ↓ 18.8 | ↑ 31.6 |
| 오리(원/kg) | | 2,667 " | 2,667 " | 1,667 " | - 0.0 | ↑ 60.0 |

※ 생산비('16) : 한우(거세우) 5,976(송아지 가격 2,885), 육우 3,726천원, 돼지 267천원, 육계 1,244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974원/10개, 우유 760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축산정보센터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아스파라거스 생산성 향상 여름 수확종료 후 단수처리 효과

□ 배경 및 필요성

- '90년대 식생활 변화와 고급채소의 수요 증대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80ha 이상이 재배되고 있음
- 아스파라거스 장기재배 시 입경줄기 양분 전류축진 및 익년 수확기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름수확 종료 후 입경줄기 관리방법이 미구명

□ 영농기술·정보 내용

- 익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름수확 종료 후 입경줄기 관리방법 : 단수처리
 - 익년 첫 수확시기 단축 : 11일(3. 9. → 2. 29.)
 - 상품 약경수량 증대 : 65%(971 → 1,606kg/10a)

□ 기대 및 파급효과

- 소득 증가액 : 2,675천원
- 경제성 분석

| 손실적 요소(A) | 이익적 요소(B) |
|---|---|
| ○ 증가되는 비용 : 1,135,000원 - 수확, 선별, 포장 노력 : 500,000원 · 10일×50,000원 = 500,000원 - 포장재 : 635,000원 · 635개×1,000원 = 635,000원 - 계(B) : 1,135,000원 | ○ 증가되는 이익 : 3,810,000원 - 상품수량 : 635kg×6,000원 = 3,810,000원 ※ 단가산정 : 연간 평균 농가수취 가격 - 계(B) : 3,810,000 |
| ○ 추정수익액(B-A) : 3,810,000 - 1,135,000 = 2,675,000원 | |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손동모, 김성준, 김효중

■ 양파 기계 정식 육묘 시 생장 억제제 처리의 영향

□ 배경 및 필요성

- 전남 재배면적 9,171ha(전국 18,015ha의 50.5%), 소득 194,182백만원(2백만원/10a), 생산량 569,472톤(전국 1,298,749톤의 43.8%), 생산액 2,068억원의 중요 작물
- 양파 생산비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육묘 시 전엽 노동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생장억제제 처리 검토 필요

□ 영농기술·정보 내용

- 재배 방법

| 육묘기 | 정식기 | 트레이규격 | 생장억제제 | 처리 농도 및 방법 |
|------------|-------|-------|----------|-----------------------|
| 9월 초~11월 초 | 11월 초 | 448공 | 디니코나졸 입제 | 1,000배 희석 액비 엽면 시비 |

※ 기타 관리는 양파 표준재배 육묘법에 준함

□ 기대 및 파급효과

- 생장억제제가 미치는 영향

| 육 묘 | |
|---|--|
| · 초 장 : 무처리 26.1cm 생장억제처리(20일) 26.6cm → 억제 효과 없음 | |
| · 뿌리수 : 무처리 16.4개 생장억제처리(20일) 15.1개 → 소폭 감소 | |
| 본 포 | |
| · 결 주 율 : 무처리 7% 생장억제처리(20일) 34% → 결주 증가 | |
| · 10a수량 : 무처리 5,025kg 생장억제제처리(20일) 2,399kg → 48% 감소 | |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성준, 김효중, 손동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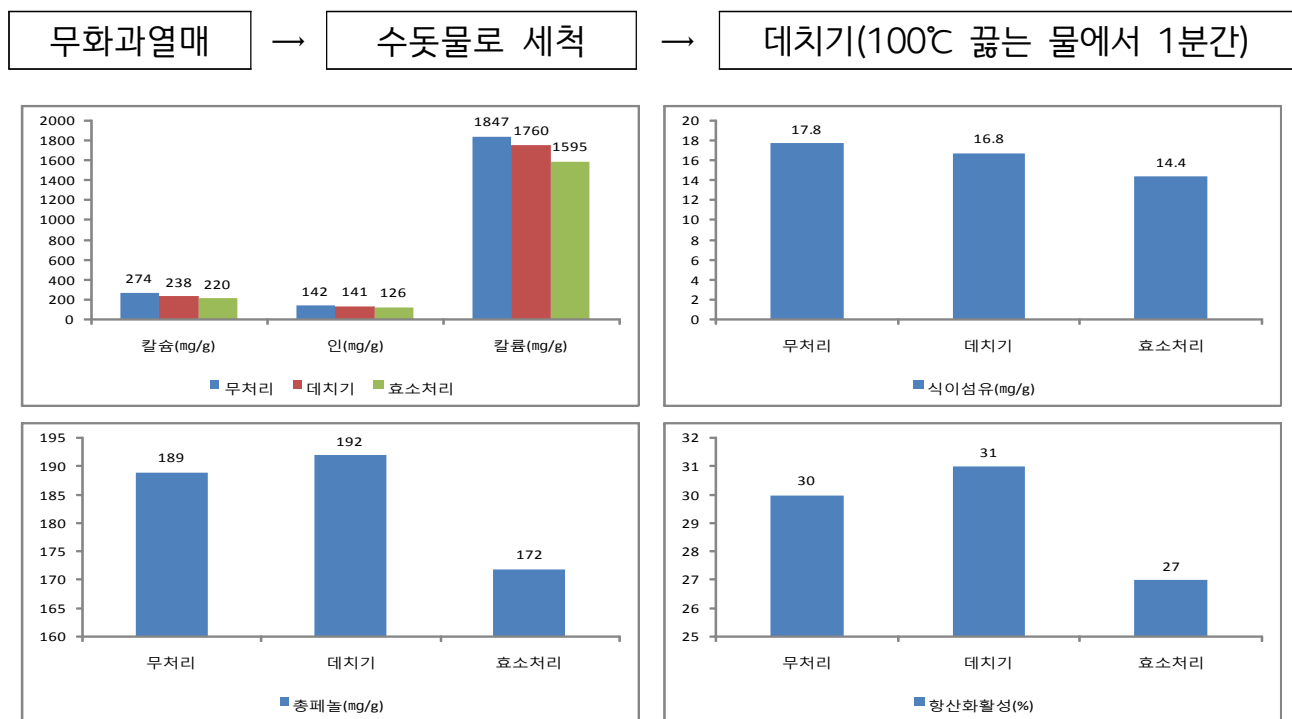
■ 무화과 열매 가공원료의 전처리 방법

□ 배경 및 필요성

- 무화과는 식이섬유, 무기질, 폴리페놀 함량이 우수한 식품이나 수확 후 저장성이 낮아서 대부분 생과일로 이용되고 있음
- 무화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제품 개발 따른 원료의 전처리 방법이 필요

□ 영농기술·정보 내용

- 무화과 열매를 100℃ 끓는 물에서 1분간 데치면 칼슘·인·칼륨 등 무기질 함량과 식이섬유함량 감소율이 적었고, 총페놀 함량과 미생물의 오염도를 낮춰 살균효과가 높았음
- 무화과 열매 전처리 방법



□ 기대 및 파급효과

- 무화과 열매 판매량의 수급 조절로 가격하락 감소 및 저장성 향상
- 고식이섬유 함유 발효기술 개발로 농·특산물의 기호성 및 부가가치 향상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강정화, 이유석, 이선경, 지수현, 조정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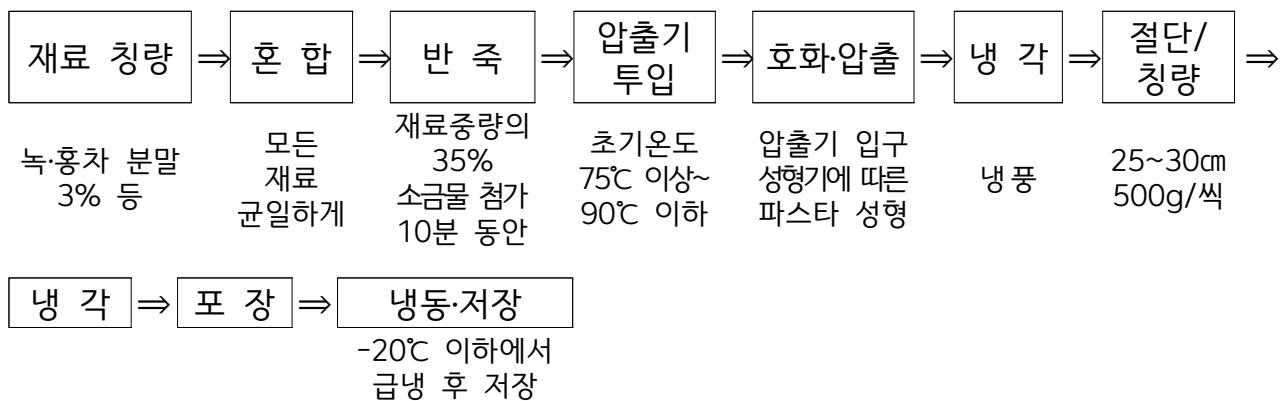
■ 녹·홍차 이용 쌀파스타 제조방법 및 적용

□ 배경 및 필요성

- 쌀소비 1인당 매년 평균 2.2% 감소로 63kg/1인/년('15년)
- 세계 면류시장은 건강 지향 트렌드로 저탄수화물, 글루텐프리 고급 제품 선호
- 녹·홍차 기능성이 가미된 신세대 선호 쌀 가공제품 개발로 차 소비촉진

□ 영농기술·정보 내용

- 쌀파스타 제조 시 적합한 부재료
 - 찰쌀보리가루(경도), 타피오카전분(점탄성), 옥수수전분(전분유출 방지) 18~20%
- 녹·홍차 쌀파스타 제품 제조를 위한 적정 배합비 결정
 - 쌀가루 77, 찰쌀보리가루 12, 옥수수전분 5, 녹·홍차분말 3, 타피오카전분 2, 소금 1, 물은 분말재료 총 중량의 35%
- 녹·홍차 쌀파스타 제조공정



□ 기대 및 파급효과

- 쌀 가공업체 기술지원으로 상품화 추진 : 전남 소재 성지 F&D 등 5개소
- 녹·홍차 기능성 활용 쌀파스타 제품화로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
 - 차 소비촉진 : 1인당 78g('14년, 농림부) → 150g/년('19년까지)
 - 차 재배 농가소득 증대 : 2,550천원('15년) → 3,500천원/10a('20년)
 - 쌀 소비량 증대 : 1인당 소비량 63kg('15년) → 65kg까지('20년)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오봉윤, 김영옥, 최정, 이보배, 박장현

■ 석회유황 종자소독법 벼 키다리병 방제 일등공신

- 석회유황 소독 9,472ha로 전년보다 59% 늘고, 키다리병 피해 크게 줄어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벼 육묘기에 발생이 많아 매년 큰 피해를 주는 키다리병 방제에 전남농기원이 개발한 석회유황 종자소독법이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농업기술원에서 올해 도내 석회유황 종자소독법 농가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석회유황 종자소독을 실시한 친환경 재배농가는 4,591호로 9,472ha 면적으로 확대되어, 작년 5,953ha에 비해 59% 이상 늘었다.
- 한편, 올해 도내 키다리병 발생면적은 전년에 비해 3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석회유황 종자소독법이 많이 보급된 해남·진도·담양군 등에서 키다리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면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석회유황 종자소독법은 벼 키다리병을 99% 방제할 수 있으며, 소독비용도 일반재배 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로클로라즈유제와 플루디옥소닐액상수화제보다 49% 이상 크게 줄일 수 있다.
- 또한, 일반재배에서 빈번한 약제저항성(내성) 발생으로 피해를 입는 것과는 달리 키다리병균에 대한 저항성이 나타나지 않고, 수발아 종자에 대해서도 모썽음병 등을 억제하면서 발근력은 좋아져, 친환경재배 농가뿐 아니라 농협 등 일반재배 대형육묘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신길호 연구사는 “저비용 친환경 석회유황 종자소독방법이 전남 친환경 벼 재배면적의 52% 보급되어, 앞으로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우량 누에씨 공급으로 양잠농가 소득을 높인다

- 전남도 16개 시군 120여 양잠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가을철 누에 사육기를 맞아 자체 생산한 우량 누에씨 400여 상자를 8월 31일까지 도내 양잠농가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급하는 우량 누에씨는 전남농기원 곤충잠업연구소가 도내 양잠농가를 위해 작년에 농촌진흥청에서 원원누에씨를 공급 받아 원누에씨를 생산하고 올 봄에 원누에를 사육하여 보통누에씨를 생산, 올 가을과 내년 봄 사육기에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 최근 양잠업은 동결건조 누에가루를 원료로 당뇨병 치료제, 슛번데기를 이용한 강장제, 익은누에를 이용한 간기능 개선제품, 누에동충하초를 이용한 면역력 증강제품, 화장품 등 다양한 기능성제품과 인공장기, 인공뼈, 인공고막 등 생명공학 소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입는 양잠에서 먹는 양잠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 이번 가을에 공급하는 누에씨는 다수성인 백옥잠 품종으로 철저한 병독검사를 거쳐 누에알로 전염되는 잔알이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강한 것들이며, 특히 이번 가을에 공급되는 것들은 알깨기를 위해 인공부화 처리한 것으로 공급 후 바로 다음 날 깨어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 누에씨는 전남도 16개 시군 약 120여 농가에 공급하여, 양잠농가에서 단기간(약 30일)의 노력으로 연간 약 15억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청정 유기축산물 생산 시동

- 친환경 유기한우 인증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에서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정책을 선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무항생제 축산물 보다 한 단계 높은 유기한우 생산단지를 만들어 유기축산물 생산에 기틀을 마련하였다.
- 최근 소비자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찾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유기농 인증을 받은 축산물은 소량에 그치고 있고, 유기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00% 유기인증을 받은 사료를 먹여야 하는 등 유기축산물 생산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2014년부터 해남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유기한우 생산 사업을 추진하여 3년간의 노력 끝에 유기조사료 생산단지 23.2ha와 유기한우 275두를 인증 받았다
- 이번에 인증 받은 유기한우단지는 8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땅끝 유기한우영농조합법인으로 지난 3년간 조사료, 축사 환경개선, 운동장 설치 등 유기한우 인증 조건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안정적이고 양질의 유기 사료를 확보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유기한우를 500여두 까지 늘릴 계획이다.
- 전남농업기술원 정찬수 기술보급과장은 “앞으로 전남의 유기농작물 재배지역과 연계하여 유기 조사료 면적을 더욱 확보하고 동물 복지, HACCP 등 친환경 인증을 받아 고품질 안전 유기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농가소득이 증대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농업용 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협약체결

- 농업용 드론의 안전사용기준 설정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업용 드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8월 24일에 고흥군, 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2년간 공동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세계 드론시장은 2015년 40억달러에서 2025년 148억달러로 급격히 성장할 전망으로, 농업분야에서는 다양한 탑재장비 및 센서를 활용해 작황분석, 파종, 병해충 방제, 토양 시비처방 등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농업용 드론의 활용은 시작단계로 안전한 사용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가운데 전남농기원,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알려진 고흥군, 전남테크노파크가 협업하여 농업용 드론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약살포용 드론의 효능과 효과분석을 하여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고, 고흥군은 실증 시범단지 선정 및 업무 지원을 하고, (재)전남테크노파크는 드론 실증 시범사업을 운영 관리하는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기능성분 풍부한 햇고구마 최고 품종 풍원미

- 맛 · 생육 · 품질 좋아 소비자, 생산자 모두 주목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맛있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고구마 『풍원미』가 8월부터 햇고구마로 출하되어 농가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2014년 개발돼 단기간에 보급률이 급속히 늘어난 풍원미는 보급 3년 만인 올해에 재배면적이 2천ha 이상으로 확대됐다.
- 고당도 품종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고 병해에 강해 생산자가 많이 찾으며, 재배면적이 넓어 균일한 품질의 물량 확보가 가능해 유통업계의 반응도 좋다.
- 풍원미의 시장 경매가격은 전체 고구마의 도매시장 가격에 비해 높게 나타나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풍원미는 찐 고구마 감미도가 16.5로 높아 맛이 좋고, 눈 건강에 특히 좋은 베타카로틴이 100g당 9.1mg 들어 있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건강식품이다.
- 현재 생산자와 유통 사업단을 중심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 출하되고 있으며, 대형마트나 온라인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국산 사과 『아리수』 초가을 사과시장 사로잡는다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국산 사과 『아리수』 품종 약 40톤이 올해 백화점과 대형 마트로 본격 유통된다며 우리 품종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 그동안 초가을(8월 하순부터 9월 초순) 사과는 8월 하순이 정상 숙기인 『쓰가루』가 있지만 저장성이 매우 약해서 8월 중순이면 유통이 끝나 버린다.
- 그 후 9월 초순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홍로』가 유통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아리수 품종이 유통된다면 8월 하순부터 소비자는 다양한 사과를 맛볼 수 있게 된다.
- 아리수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에 익는 품종으로 기온이 높은 남부지역에서도 색깔이 잘 드는 이른 추석용 품종으로 개발됐다.
- 아리수는 이 시기에 출하되는 다른 사과에 비해 당산비(당도 15.9°Brix, 적정산도 0.43%)가 적당하고 식감이 좋고 맛이 우수하며 저장성도 좋다. 과일 무게는 285g 정도의 중과이고 껍질에 줄무늬가 없이 골고루 붉은색으로 착색된다.
- 또한 다른 사과보다 탄저병과 갈색무늬병에 강하고 낙과가 없어 재배 농가가 선호하고 있다.
- 2014년부터 농가에 묘목이 보급돼 현재 150ha가 재배되고 있으며 2016년 적은 양이지만 시장에 첫 선을 보였으며 올해 본격 유통을 앞두고 있다.
- 올해 아리수 품종 출하는 생산 농가를 조직화하여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정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동일 기준으로 선별해 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과수 토양병 흰날개무늬병, 감염 여부 손쉽게 진단

- 1g 미만의 적은 토양 시료로 2시간 내 판단 가능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충북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흰날개무늬병 감염균(*Rosellinia necatrix*)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해독해 감염 여부를 2시간 내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 흰날개무늬병은 배·사과·복숭아·포도 등 대부분의 과수 뿌리에 감염되는 토양병해로서 육안으로 병징을 관찰할 시기가 되면 이미 피해가 커 치료가 불가능하다. 심할 경우 폐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과수원의 암과 같은 치명적인 병해이다.
- 이번에 개발한 흰날개무늬병 감염 진단 기술은 1g 미만의 적은 토양 시료로 조기에 감염 여부를 판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흰날개무늬병 병원균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펄절선택스(Fungal- SELEX) 공정법을 사용해 흰날개무늬병의 감염성 포자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앵타머(aptamer) 소재를 개발했다.
- 특히 개발된 앵타머 소재는 표적체인 흰날개무늬병균을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물질로써 과수원 토양 시료에서 추출한 디엔에이(DNA)와 결합해 병해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다.
- 기존에는 흰날개무늬병 진단을 위해 토양 및 식물체를 채취해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또는 고구마·뽕나무 가지를 감염이 의심되는 토양에 삽입하고 약 30일 뒤 삽입체 상의 병원균 형성 여부를 보고 감염 여부를 판단했다. 이러한 방법은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 농촌진흥청은 개발한 이 기술을 특허출원이 했으며 관련 논문도 국내 식물병리학회에 보고했다.
- 또한 현장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단키트를 만들어 내년 중순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 흰날개무늬병은 과수원 토양의 물 빠짐이 좋지 않을 때 주로 발병된다. 최근 논을 과수원으로 전환한 곳, 수원지 주변 평지에 과수원에서 많이 발견된다.
- 나무뿌리에 하얀 곰팡이가 날개 모양과 같이 분포해 이름 붙인 병해로 감염되면 나무 전체가 시들어 죽게 하며 지속력과 전염성이 커 방제가 어렵다.
- 뿌리썩음병, 가지마름병, 나무좀과 병징이 비슷해 진단을 잘못하면 초기에 방제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치료제 사용으로 병해를 더 키워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흰날개 무늬병 감염 나무 뿌리】

■ 번식능력 뛰어난 한국형 씨돼지 2마리 선발

- 새끼 1.58마리 더 낳을 수 있어... 어미돼지 개량 속도낸다 -
- 한우와 젓소에 이어 돼지도 국가가 주도하는 개량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형 씨돼지를 선발했다.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과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능력이 우수한 어미 쪽(모계) 씨돼지 2마리를 선발했다.
- 이번 선발은 농장(종돈장) 간의 씨돼지 능력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의 결실로, 국내에서도 새끼를 많이 낳는 어미 쪽 씨돼지를 선발하고 활용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일반적으로 돼지는 3품종을 교배해 생산한다. 아버지는 육질과 성장률이 뛰어난 『두록』 품종을, 어미는 새끼 수와 젓 먹이는 능력(포유능력)이 뛰어난 『요크셔와 랜드레이스』 품종이 쓰인다.
- 이번에 선발된 씨돼지 2마리는 요크셔 품종으로 새끼 수(생존 산자수) 평균이 17.5마리이다. 또한, 육종가(유전능력)는 1.58마리로 일반 돼지의 평균보다 유전적으로 새끼를 1.58마리 더 낳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씨돼지는 앞으로 돼지인공수정센터(핵군AI센터)에 들어가 정액을 생산함으로써 돼지개량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농장 간 교배에 활용할 예정이다.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은 씨돼지농장의 좋은 씨돼지를 선발·공유·평가해 유전적 연결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한국형 씨돼지를 개량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국립축산과학원은 사업관리와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를,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사업의 추진과 능력검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 현재 19개 씨돼지농장(종돈장)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3곳의 돼지인공수정센터(핵군AI센터)를 운영 중이다.
- 여러 농장에서 같은 씨돼지를 사용하면 혈통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이들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해외에서 씨돼지를 들여오지 않고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돼지육종을 지속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김시동 가축개량평가과장은 “여러 농장의 씨돼지 능력을 서로 비교하게 됨으로써 수입 씨돼지에 맞설 수 있는 씨돼지 개량 기반을 갖추게 됐다”라고 밝혔다.
- 한편, 올해 10월에는 아비 쪽(부계)와 어미 쪽(모계) 씨돼지를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가을 베란다 텃밭 가꾸기, 준비하세요

- 상추·케일·루꼴라 등 가을에 키우기 좋은 작물 추천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가을 베란다 텃밭재배 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과 가을 베란다에서 재배 가능한 작물을 소개했다.
- 가을 베란다에서 재배 가능한 작물로는 상추·엔다이브·케일·청경채·다채·겨자채·루꼴라·시금치·파슬리·쪽파 등 잎채소류다.
- 봄이나 여름에 비해 자라는 속도가 다소 느리긴 하지만, 물 관리나 병해충 관리 등 재배가 보다 쉽다. 저온에 강한 편이라 10℃ 내외의 온도 유지가 가능한 베란단의 경우 겨울까지도 재배 가능하다.
- 작물의 종류나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9~10월에 모종을 심는 경우 이듬해 1~2월까지 잎을 수확할 수 있다. 또한 겨울을 지난 잎채소들은 이듬해 봄 꽃대가 올라와 꽃을 피우는데, 겨자채 등 배추과 채소의 꽃을 샐러드 등 요리 재료로 이용하면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 가을 베란다 텃밭 가꾸기를 위해서는 8월 중·하순부터 모종 또는 씨앗, 재배용기, 상토 등을 준비한다.
- 사용하던 재배용기는 지난 재배 때 잔존하던 병해충을 없애기 위해 깨끗이 씻어 말려 이용한다.
- 텃밭 가꾸기를 위한 모종 판매는 주로 봄철(4~5월)이나 가을철(8~9월)에 한정되므로, 그 외 시기에는 직접 씨앗을 뿌려 길러야 한다. 씨앗을 심을 경우, 육묘기간을 고려해 모종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심어야 한다.

- 베란다 텃밭 가꾸기를 위한 용기와 상토의 준비, 씨앗 구입 및 심기 등에 관한 정보는 『왕초보 도시농부를 위한 도시농업 농자재 정보』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이 책자는 농업과학도서관(<http://lib.rda.go.kr>)에서 원문보기가 가능하며, 농서남북(<http://lib.rda.go.kr/pod>)에서는 원문보기 및 책자 주문을 할 수 있다.
- 가을철 실외 텃밭은 2~3달 정도만 재배가 가능한데 반해 베란다 텃밭은 늦가을, 겨울과 같이 온도가 낮은 시기, 서리 또는 눈이 내려 실외에서 식물재배가 어려울 때에도 재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또한 가을엔 햇빛도 베란다 안쪽까지 깊이 들어오고 채소와 허브를 키우기에 온도가 적당해 풍성한 베란다 텃밭을 가꿀 수 있다. 겨울에도 햇빛의 세기는 약한 편이지만 베란다 깊숙이 빛이 들어 오기 때문에 텃밭 가꾸기가 가능하다.
- 무엇보다 봄·여름에는 진딧물이나 총채벌레 같은 해충이 많이 발생해 텃밭 가꾸기가 쉽지 않은데 가을·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발생이 적은 편으로 병해충 관리가 용이하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상추】



【엔다이브】

6 정책 동향

◆ 전남도, 24일부터 가금농가 권역별 순회교육

- AI와 닭 진드기 방역 요령 소개... 친환경 축산물 생산 권장 -
- 전라남도가 24일부터 29일까지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닭 진드기 방역 요령을 소개하고, 친환경축산물 생산을 적극 권장하는 권역별 순회교육에 나선다.
- 이번 교육은 AI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이 오기 전에 가금 사육농가 자율방역의식을 고취해 AI 재발을 방지하고, 올바른 진드기 방제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AI 차단방역 요령과 올바른 닭 진드기 방제요령,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해 가금농가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교육한다.
- 교육은 24일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담양·곡성·영광·장성 등 북부권을 시작으로 25일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목포·나주·화순·무안·함평·신안 등 서부권, 28일 영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장흥·강진·해남·영암·완도·진도 등 남부권, 29일 순천시팔마체육관에서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 등 동부권 순으로 진행된다.
-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가금농가에서 AI 차단방역을 생활화하고, 살충제 오·남용을 방지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등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 기반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가금농가에서는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농식품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방안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8월 24일, 쌀 관련 4개 농업인단체 및 농협중앙회와 함께 『'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 이 협약식은 '16년산 우선지급금 환급사태를 둘러싼 정부와 농업인단체 간 갈등 상황을 마무리 짓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 농식품부는 그동안 양곡관리법, WTO규정상 시가매입 원칙에 따라 우선지급금 환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따라 환급을 추진해 왔다.
- 이에 대해 농업인단체는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책임 등을 들어 환급에 반발해 왔으나, 새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이번 환급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서 체결에 합의했다.

□ '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 내용

- (농식품부) 환급 발생에 대해 유감 표명
 - 환급금 납부기한 연장 (8월말 → 12월말)
 - 농업인단체와 함께 금년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마련 및 양곡정책 개혁
 - 환급 관련 지자체·농업인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
- (농협) 쌀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추진
- (농업인단체) 농업인들의 환급금 자율 납부에 협력

- 이 협약서에 따라 농업인들은 연말까지 지연이자 부담 없이 환급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금년도 수확기 대책 및 향후 양곡정책 운영 과정에서 농업인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협치 농정』의 기틀이 마련되는 한편, 쌀 산업발전을 위한 농협의 자체 지원 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로, '16년산 정부양곡(공공비축:36만톤, 시장격리:30만톤) 매입 과정에서 지급한 우선지급금이 확정가격보다 높아 8월 21일 현재 환급한 금액은 119억원(197억 중 60%), 환급인원은 15만명(22만명 중 68%)이다.
- 김영록 농식품부장은 “본 협약체결은 정부, 농협 및 농업인 단체가 갈등상황에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히고,
- “향후 농정개혁 추진과정에서도 본보기로 삼을만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17년산 시장격리 조기발표 등 쌀값 회복을 위해 농업인단체, 농협 등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나주시, 미래 농업 대비한 드론 국가자격증 반 운영

- 자부담 30만원 제외 시비 지원, 교육생 비용 부담 덜어 -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미래 농업분야 핵심 장비로 각광받고 있는 초경량 무인 비행장치인 드론 국가자격증 반을 운영, 지역 농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끌고 있다.
- 시는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된 관내 농업인 23명을 대상으로 드론 국가자격증반을 8월 14일 1기 교육생(9명)을 시작으로 2기 9월 4일, 3기 11월 6일까지 2주 간격, 총 3차례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를 극복하고, 드론을 활용한 농업분야 생산의 효율성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전문교육기관인 영암소재 (주)에어콤에서 실시되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드론 안전사고 예방 등 이론 교육과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 한편, 시는 1인당 300만원이 넘는 자격 취득 비용을 감안해, 자부담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시비로 지원하는 등 교육생의 비용적 부담을 덜어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이상목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분야 뿐만이 아니라 산업용 드론과 레저용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창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출처 : 나주시

■ 광양시,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선다

- 귀농·귀촌 성공사례와 농·특산물 전시, 판매 등 홍보 활동 펼쳐 -

- 광양시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 센터에서 개최되는 『2017 A Farm Show 농림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해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섰다.
- 시는 박람회 기간 동안 광양시의 귀농·귀촌 정책과 귀농 성공 우수 사례, 노하우를 전달하고, 1대 1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현실에 맞는 귀농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 또 시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시정 성과물과 새로운 관광명소인 광양와인동굴을 비롯한 관광 상품을 소개해 도시민 관광객 유치에도 나섰다.
- 특히, 매실차·새싹삼·건나물 등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시식행사를 병행해 박람회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 이 밖에도 귀농·귀촌인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선보여 소비자들에게 직접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생산과 판로확대, 마케팅 방향을 세울 수 있는 자리로 만들었다.

* 출처 : 광양시

■ 담양군, 농작업 대행 서비스 9월초 개시

- 농업 기계화 사각지대 소외계층 대상 시범운영 -

- 담양군이 오는 9월 1일부터 경작 면적지의 규모가 0.3ha 이하, 75세 이상 고령자,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서비스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 이 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급감과 농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며 트랙터와 작업기·관리기를 활용해 밭작물 작업에 지원된다.
- 농작업 대행신청은 전화상담(☎061-380-3446, 3434) 또는 임대사업소 방문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소정의 대행료를 납부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 군은 그동안 임대사업 사각지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 운전교육 및 운영교육을 실시해 농작업 대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와 남부지소에 67종 454대의 지역 맞춤형 농기계를 확보해 농업인에 대한 대여서비스로 농업 기계화 및 농업인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작업 대행서비스 사업을 적극 홍보해 농민들의 일손 부족을 돕고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담양군

■ 고흥군, 농산물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생 선착순 모집

- 고흥군은 관내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활동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7년 농산물 가공창업 아카데미』 기초반(2기) 교육생 25명을 22일부터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 『가공창업 아카데미』는 식품가공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해 농산물 가공 창업 코칭과 식품제조 및 유통방법, 소규모 사업장의 HACCP 인증제도에 대한 강의와 함께 장비를 활용한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 교육은 내달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교육의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 (Fax 061-830-5596)나 군 농업기술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061-830-6852)으로 하면 된다.

* 출처 : 고흥군



■ 화순군, (주)포프리 화순식품단지에 600억원 투자

- 식품제조시설 9월 착공 560명 신규 일자리 창출 -

- 친환경 식품기업인 (주)포프리(대표 김희수)가 화순군과 523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오는 9월 화순식품단지에 600억여원 규모의 식품제조 시설을 착공한다.
-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주)포프리는 2016년 6월 화순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2016년 10월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 이어 8월 16일 건축허가를 신고한 뒤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조성된 화순식품단지에 오는 9월부터 단계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 (주)포프리는 598억원을 들여 식품단지 전체 면적인 84,257㎡ 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친환경 식품제조 시설 등을 조성해 6차산업을 집적화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1단계로 2018년까지 광주와 보성 일원에 있는 계란·두부·콩나물·육가공 사업장을 화순식품단지로 이전하고, 사무동과 연수원을 신규로 건립할 계획이다.
- 또한 2단계로 2020년까지 친환경매장을 비롯해 영화관, 공연장, 숙박시설, 찜질방, 예술가지원센터, 휘트니센터 등 식품의 거리를 조성한다.
- 마지막 3단계로 2022년까지 도시락공장과 김치, 물류센터, 디저트 마을, 체험센터 등을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 (주)포프리 이번 투자로 현재 240명의 근로자와 신규로 560명 등 8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화순군

■ 장흥군, 국산 품종 조사료 자급율 향상 박차

- 장흥군이 국내 기후에 적응성이 높은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 신품종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전남지역 목초 신품종 이용 촉진사업』은 양질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9년간 계속되고 있다.
- 종자증식을 위한 채종답은 장흥군 관산읍에 위치한 『정남진 장흥 한우 육종단지』에 1ha 규모로 조성됐다.
- 채종답에서는 농가에서 종자 확보가 어려운 품종을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
- 가격이 비싼 수입종자를 대체해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이곳에서 채종되는 국내 육성 품종인 『그린팜2호』는 기존 품종에 비해 추위에 강하면서 출수가 빠른 조생종 신품종이다.
-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는 화본과 작물로써 조단백질 함량이 많아 사료가치가 높고, 가축의 기호성이 매우 좋으며 습해에도 잘 견디는 재배에 유리한 작물이다. 또한 초기 생육이 빠르고 재생력이 좋아 여러 번 수확이 가능하다.
- 방목, 건초, 사일리지 조제 등 용도도 다양하지만 식물체에 당 함량이 많아 사일리지 조제에 특히 강점이 있다.
- 군 관계자는 “2017년 봄에 채종한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 종자는 국내 육성 조사료 확대 재배를 위해 재배농가에 무료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장흥군

■ 강진군, 농촌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 강진군이 농촌 고령화, 여성농가주 증가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농기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 농기계 지원사업은 군이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농기계 구입 금액의 50%(최대 소형 200만원, 중형 500만원, 대형 1,000만원 까지)를 지원해준다.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고령화가 심화되어 가는 농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 2016년 강진군이 농가에 지원한 농기계는 255대, 총 5억 7천만원이다. 올해는 435대, 총 16억원을 지원해 2016년 대비 10억원 가량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다.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커져감에 따라 군은 공정하게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 올해 초 자체적인 기준을 세워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
- 우선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타 분야의 국·도비 농기계 지원사업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 비농가 및 농기계 지원사업 지침에 결격사유가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령 및 성별 등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사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기계화율이 미흡했던 밭농사용 농기계와 다수의 영세소농이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대상으로 지원해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기계 구입부담을 최소화·저비용으로 기계화를 촉진해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업인 활력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영세농가, 대농을 구분해 지속적으로 농가수요에 맞는 농기계를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강진군

■ 함평군, 고품질 아로니아 수확 한창

-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한 농가에서 슈퍼푸드로 잘 알려진 아로니아 수확이 한창이다.
- 아로니아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등 함유량이 타 작목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 몸속에 생성된 활성산소를 줄여 항암효과, 시력개선, 면역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 특히 함평산 아로니아는 잘 익은 열매만을 선별해 고유의 짙은 맛이 적고 당도는 높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함평군은 2013년부터 묘목 및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해 재배 면적을 15ha까지 확대해 왔다.
- 또 아로니아 품목 연구회원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재배방법, 전정기술 등 기술교육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소득 작목으로 아로니아를 정착 시키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 생산안정 지원, 재배기술 교육, 가공 상품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출처 : 함평군



8 해외 농업정보

◆ 미국, 간식처럼 먹는 과일·야채 시장 급성장

- 미국에서 『간식처럼 먹는』 (snackable) 과일과 야채 시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식사 사이의 간격을 채우는 간식거리도 점차 과일과 야채가 그 자리를 대신 하면서 간식처럼 먹는 과일과 야채 시장 규모는 올해 5월까지 163억달러까지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 닐슨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식료품 마켓 진열대에 새롭게 출시된 포장된 『on-the-go』 간식 제품은 약 900여 가지에 달한다. 이 중 600여 가지가 과일과 관련된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 카테고리별로는 신선과일(Fresh Snacking Fruit)이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7%가 늘어난 규모다. 스무디는 27%로 2016년보다 3% 늘었고, 신선야채(Fresh snacking Vegetables)는 17%로 전년대비 4% 증가했다. 말린과일과 넛츠 스낵믹스는 7%로 2016년보다 8% 상승했고 과일컵은 5%로 전년대비 10%가 줄었다.
-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일과 야채를 간식처럼 가볍게 즐기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간식 과일 시장은 과일과 스낵 시장 양쪽에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 신선과일 시장에서 『On-the-go』 스낵 규모는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 다른 가공과정 없이, 깨끗이 씻고 잘려 원물 그대로 즐기는 간식 과일과 야채는, 건강 트렌드와 소비자들의 선호도 증가로 점차 제품 수도 늘고 있다.
-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패키지에 딸기·방울토마토·파인애플 등 각종 과일을 비롯해 당근·파프리카까지 종류도 다채로워지고 있는 추세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간식을 먹이고자하는 부모들을 공략, 어린이들을 위해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들도 눈에 띈다.
- 조사를 진행한 닐슨은, 간식 과일시장에 뛰어든 소매업체들이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n-the-go 스낵시장 규모가 커지고 간식 과일과 야채의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과일과 야채 종류를 믹스매치하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담은 패키지 등을 활용한다면 시장 확대에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일본, 주키니 호박의 소비량 증가

- 일본 대표 도매시장인 도쿄시장의 주키니 호박 입하량은 최근 5년 사이에 1.3배로 증가하였다.
- 도매회사 관계자는 출하량이 증가한 이유를 맛이 강하지 않아,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 주키니 호박에 관하여 한 슈퍼마켓 점장은 주키니 호박은 오이·토마토와 어깨를 나란히 할 여름철 대표 채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여러 개가 담긴 묶음 형태보다 원하는 개수를 자유롭게 구매하는 형태를 선호한다고 한다.
- 일본의 한 채소 소믈리에에는 주키니 호박의 수요가 외식·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 과거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탈리아 채소로 주키니 호박을 경험한 젊은 여성이 결혼하면서 주키니 호박을 일반 가정요리의 식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 또한, 주키니 호박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슈퍼마켓과 산지의 간편 레시피 제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일본 내에 주키니 호박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주키니 호박을 대체할 수 있는 애호박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일본의 건강과 미용 의식이 높은 상황에서 중·고령자층을 타겟으로 애호박의 고혈압, 치매예방, 노화방지 등 기능을 강조하고, 여성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저칼로리를 강조한 레시피 및 활용 방안을 홍보한다면 대일 수출 확대에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8. 28.(시카고 선물거래소)

□ 공급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계약 최저치를 기록한 옥수수 선물가격

○ 밀 선물시장 상황(▲0.1%)

- 밀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0.1% 상승하며, 전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하였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한 주간 동안 밀 선물가격은 약 1.7% 하락하였다.

○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1%)

- 기술적 매도와 풍부한 세계의 곡물 공급으로 인해 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1% 하락하며, 계약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세계에서 공급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의 수확량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락세를 강화하였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금주 3.4% 하락하였다.

○ 대두 선물시장 상황(▼0.2%)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달성하였던 2주간의 최고치에서 0.2% 하락하였다. Pro Farmer의 작물 투어 이후 미국 대두 수확량에 대한 호의적인 전망으로 인해 하락세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보리·밀 보급종 추가 신청 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올 가을에 파종할 '17년산 맥류(보리·밀) 보급종을 8월 24부터 9월 5일까지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추가로 신청 받는다.
- 보급종 추가신청은 기존의 지역별(시도)로 배정된 품종 및 물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잔량이 남아있는 모든 품종에 대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 신청 가능한 보급종은 겉보리 3개 품종 160톤(올보리 20·큰알보리 1호 120·혜양 20), 쌀보리 2개 품종 350톤(재안찰쌀 45·흰찰쌀 305), 청보리 2개 품종 370톤(영양 368·우호 2), 밀 3개 품종 420톤(금강 230·조경 20·수안 170) 등 총 10개 품종 1,300톤이다.
- 정부보급종은 소독 처리한 종자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농업경영체가 친환경 또는 무농약 재배 등을 목적으로 종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종자 공급가격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겉보리/청보리 | 쌀보리 | 밀 |
|--------------|---------|--------|--------|
| 소독품(원/20kg) | 26,400 | 29,950 | 28,600 |
| 미소독품(원/20kg) | 24,980 | 28,530 | 27,180 |

- 그밖에 보급종 신청·공급 등과 관련된 문의사항 및 보리·밀 품종별 특성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054-912-0187, www.seed.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2017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9월부터 시작

- 전국 4,010 가구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부문 면접조사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9월 한 달 간 『2017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한다.
- 조사는 5년 주기로 삶의 질 부문 전반에 대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로 이뤄지는데, 2017년은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부문에 대한 심층조사를 하게 된다.

□ 2017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주요 내용

- 기간 : '17. 9. 1. ~ 9. 30.(1개월)
- 대상 : 농어촌 거주 4,010가구의 가구주 또는 배우자
- 방식 : 조사요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 근거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목적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기초자료
- 내용 :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부문 심층조사
-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농업연구관은 “설문조사 기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으로 농촌지역 조사환경이 과거보다 많이 열악해졌다”라며,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수고스럽더라도 살기 좋은 농어촌 여건을 마련하도록 농촌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농식품 소비, 『가치소비·간편·컬러농산물·슈퍼곡물』 뜬다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2017 농식품 소비트렌드 발표대회』의 하나로 진행된 가계부 분석결과 가치소비·간편화 강세·컬러농산물·슈퍼곡물의 득세가 4대 농식품 트렌드라고 밝혔다.
- 이 내용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도시간구의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로 8월 31일 9시, 농촌진흥청 종합연찬관에서 열리는 『2017 농식품 소비트렌드 발표대회』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 먼저, 중요한 판로로 떠오른 온라인 농식품 시장(8.8조원, 연평균 성장률 29%(2001~2016))의 소비자는 누구이며, 어떤 상품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준다.
- 또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온라인 시장에서, 농가가 쇼핑몰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 특히, 도시간구들의 가계부에서 엄선했던 25품목(식량작물부터 임산물까지)의 흥미로운 구매동향도 공개한다.
-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생산이 소비로 직결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농산물만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시대가 됐다”라며, “'2017 농식품 소비트렌드 발표대회에 참석하셔서 『소비자에게서 길을 찾는 농업』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행사 참여는 농촌진흥청 누리집(<http://www.rda.go.kr>)에서 미리 등록하고, 자세한 문의는 농산업경영과(☎063-238-1204, 1224, 1226~30)로 전화하면 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전남농업정보지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업인들에게 맞춤형 영농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는 농업정보지가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정보지는 매주 『주간농업정보』로 제작되어 이메일, 스마트앱, SNS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제공되고, 짝수달에는 『월간농업정보지』로 발간하여 농업인, 품목별협의회, 유관기관 등 7,000여명에게 35개 작목에 대한 관측정보, 농·축산물 재배 및 작황동향, 가격정보, 수출입 동향, 유통 및 소비트렌드, 농업인 성공스토리 등이 제공되고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이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농업정보, 매체, 형식, 만족도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농가 1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농가의 91%는 전남농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82%가 농업관련 상식이 향상되었다. 80%는 홍보마케팅기술이 향상되었다. 76.4%는 생산비 및 경영비가 절감되었다. 74%는 매출액 및 소득이 증대되었다고 응답 하였다.
- 농장홍보를 위해 농업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블로그, 밴드, 카카오톡, 카페, 페이스북 순이며, 농업정보 수집은 블로그, 밴드, 페이스북, 카카오톡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향후 제공되기를 바라는 정보제공 방법으로는 스마트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용앱(app), 동영상, 카드뉴스, 음성 순으로 나타났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 화분매개곤충 기술 확산을 위한 이용현황 및 전망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2016년 화분매개곤충 이용현황 실태조사 결과 기후변화에 따라 화분매개곤충을 사용하는 아열대 작목이 늘고 있다.
- 2016년 화분매개곤충 이용현황 실태조사 결과, 2011년(19작목)에 비해 증가해 26개 작목(채소 11개 및 과수 15개 작목)에서 화분매개곤충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열대작목인 참다래·망고·패션플루트 및 여주 등에서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아열대작목 뿐만 아니라 아열대작물 재배면적도 증가함에 따라 주요 아열대 작물의 수분에 적합한 화분매개곤충 적용기술 개발 연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 26개 작목에 대한 화분매개곤충 사용 평균은 25.8%(채소 11작목 사용률 59.4%, 과수 15작목 사용률 9%), 사용한 총 화분매개곤충 봉군 수는 479,577봉군, 화분매개곤충 사용 농가 수는 55,208농가였다.
- 2011년 19개 작목(채소 10, 과수 9) 대비 작목의 다양화(7작목)가 이뤄졌으며, 채소작목의 화분매개곤충 사용률이 48.4에서 59.4%로 11% 증가한 반면 과수는 14에서 9%로 5% 감소하였다.
- 화분매개곤충 사용 봉군 수는 2011년 대비 131,390봉군(27.4%)이 증가하여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화분매개곤충의 감소에 따라 사용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화분매개곤충으로 꿀벌·뒤영벌·뿔가위벌류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일부 망고와 채종용 양파에 파리류를 화분매개곤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6개 작목에서 화분매개곤충 종류별로 사용률을 조사한 결과, 꿀벌 74.2, 뒤영벌 20.5, 뿔가위벌류 1.8%, 꿀벌·뒤영벌·뿔가위벌류의 혼합사용이 3.2% 그리고 파리류가 0.3%를 차지하였다.
- 화분매개곤충을 사용한 1,120농가 중 97%가 앞으로도 작물재배에 화분매개곤충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고 함으로써 화분매개곤충 활용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 화분매개곤충 이용효과에 대한 조사결과, 97.8%가 만족도를 느꼈으며, 화분매개곤충 이용 시 장점으로서는 수정률 향상(30.5), 품질향상(27.3), 비용 및 노동력 절감(25.8) 등이었다.



- 더불어 2016년 화분매개곤충 이용현황 실태조사가 포함된 책자 『화분매개곤충 기술 확산을 위한 이용현황 및 전망』을 7월말에 화분매개 이용농가와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 배부하였다.
- 책자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lib.rda.go.kr, 발간도서) 누리집에서 e-Book으로 볼 수 있을 예정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150호

주간

전남농업정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3 fax 061.335.4199